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Marital Stability and It's Related Variables Among Urban Couples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 미 숙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Kim, Mi Sook*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Myung Cha*

목 차

<p>I. 서 론</p> <p>II. 이론적 고찰</p> <p>1. 현대사회와 가족의 불안정성</p> <p>2. 결혼안정성</p> <p>3.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p> <p>III. 연구방법 및 절차</p> <p>1. 연구문제</p> <p>2. 측정도구 및 변인의 구성</p>	<p>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p> <p>IV. 결과 및 해석</p> <p>1.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p> <p>2. 각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p> <p>3. 관련변인들의 영향력</p> <p>4. 결혼만족도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안정성</p> <p>V. 요약 및 결론</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 tendency of marital stability,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marital stability of urban couples.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the married couples living in Seoul. Total sample consisted of 476 spouses(238 couples) finally selected datum sourc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such as the factor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χ^2 test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 1) In general the score of marital stability of urban couples was somewhat high.
- 2) Among the related variabl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SES), religion, social background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marital stability. Also, marital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ivorce influenced marital stability.

3) The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marital stability were in the order of marital satisfaction, attitude toward divorce, years of marriage.

4) Four types of marital stability are identified based on marital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ivorce. Among the surveyed couples, 39.7% showed the most ideal pattern in the sense that they show high scor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divorce.

On the other hand, 25.2% showed high psychological instability that they show low scor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divorce.

After all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relating to marital stability was marital satisfaction.

I. 서 론

오늘날 이혼의 증가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어느 사회이건 가정의 파탄이 쉽게 일어난다면 그 사회에는 큰 혼란이 올것이다. 가정파탄의 방지를 위해서 서양에서는 종교의 힘이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이 큰 역할을 하여 왔다.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 핵가족으로의 변화 가운데 특히 대두되는 문제는 확대가족제도와 비교하여 핵가족제도는 심각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요인은 결혼의 질이 낮은 점과 관련이 있겠으나, 결혼의 질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또 결혼의 질이 높은 경우에도 결혼의 안정성은 낮아질 수 있다. 결혼의 지속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이혼이 아직까지는 다른 사회에 비하여 낮은 비율이지만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이며(차명희 1986), 이와같은 특성은 실제로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83년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상담과 부부관계에 관한 상담이 63.7%를 차지했으며, 이어 1985년에 법원을 통해 처리된 이혼사건도 총 26652건에 달하며 이중 여성의 이혼청구 사례가 52.3%나 되었다(조선일보 1986). 결혼의 부적응 상태라 볼 수 있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결혼안정성에 대한 이론의 연구가 시급하며, 특히 한국가족의 불안정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자

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에 관한 이론적 전개를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자료가 밀받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결혼안정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족의 안정성이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혼률이 증가추세이긴하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 부부들의 결혼안정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 관련변인을 규명하여 결혼안정성 연구에 유용한 시사를 하는 한편 과도기에 처한 우리사회에서의 부부관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현대사회와 가족의 불안정성

가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과 가족집단 내부의 인간관계도 계속 변화된다.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의 우애적 기능이 강조되는 것은 산업사회 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며, 사회가 전문화될수록 가족은 심리적 욕구만족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기관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수반하여 가족집단에 내재하는 문제점도 크게 변모되어 가족의 불안정성이란 새로운 가족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현재

가족의 불안정성은 우선 가족위기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적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엄격한 도덕이나 사회적 비난, 혹은 법에 의해 가족의 위기를 억제하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가족이 스스로 자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시대이다. 이러한 자체적인 대처능력은 사회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덜 엄격하고 구속력 또한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이동원 1987). 한편 부부간의 지배복종관계가 협력관계로 대치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제도하에서는 남성의 지배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역기능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만은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한남제 1968). 이상의 요인과 더불어 가족의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또다른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가장 현저한 변화는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이다. 현재도 이혼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타인에게 숨겨야 할 것도, 공적품위의 손상도 아니며, 오히려 동정받을만한 유감스러운 경험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아가 이혼은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법(Goode 1961)으로 간주되기도한다. 이처럼 종전의 이혼관, 가족관, 도덕관은 변화되고, 애정과 행복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혼관의 변천, 이혼에 대한 자유사상은 오늘날의 이혼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보겠다. 이렇게 볼 때 가족의 불안정성은 그 가족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2. 결혼안정성

사회학자들이 결혼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기본적인 관점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Lewis, Spanier 1979). 첫번째 접근은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결혼관계의 질에 초점을 둔다. 두번째 접근은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이것은 결혼이 죽음에 의해서 종결되느냐, 혹은 이혼이나 별거, 유기등에 의해서 종결되느냐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접근에 있어, 안정된 결혼이란 한 배우자의 자연적인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결혼안정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r(1973)는 이 개념을 '지속되는 생활' 대 '결혼의 종국'으로 정의했고, Lewis와 Spanier(1979)에 의하면 '결혼안정성'은 어떤 결혼생활이 유지되느냐 않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는 결혼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지위로서 정의된다.

한편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결혼와해, 이혼, 낮은 결혼의 질, 유기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Booth, Johnson 1983), Booth(1980), 최연실(1987)등은 결혼불안정성을 '해체에 이르러 최후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을 부부가 와해시키려는 성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결혼해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공식적인 이혼으로 나타나는 않았을지라도 부부 상호간의 심리상태가 결혼을 와해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결혼안정성의 지표로 보았다.

다음에 결혼안정성을 설명해 주는 주요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Festinger(1957)와 Heider에 의해 구성된 인지적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에 강한 정적상관이 있다. 즉 결혼에 불만족한 사람은 자신이 실제 인지하는 결혼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혼생활의 질 지수는 결혼생활의 안정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Spanier 1976). 그러나 낮은 결혼의 질이 반드시 이혼·별거·유기에 대한 높은 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andis 1963).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부조화이론의 부분적 모순을 보충해주는 이론으로서 사회교환이론을 도입한다. 이 이론의 최초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은 Levinger(1965)로서 그는 장이론의 개념을 도

입하여, 결혼을 유지시키는 유인과 결혼을 해체하는 데 따르는 장애, 해체 후의 대안이라는 개념으로 혼인관계의 해체에 접근하였다. 이와 유사한 이론정립의 한 시도로서 Nye, White 그리고 Friedenes(196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결혼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3가지 영역으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감), 결혼해체를 막는 장애요소, 결혼대안 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같은 수준의 결혼의 질에서 어떤 부부는 별거나 이혼을 하는 반면 어떤 부부는 결혼생활을 지속한다. 이렇게 볼 때 결혼과 이혼간의 매개적 장애요인들은 결혼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해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이혼의 결정은 거시적인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는데(Hicks와 그의 동료들 1970), 특히 우리사회는 아직도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가치가 지배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점(한남제 1985)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 한국가족의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들고 있는 점(박혜인 1988)을 감안해 볼 때, 우리사회의 경우 이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힘은 막대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wis와 Spanier(1979)를 비롯한 여러학자들의 이론적 가정에 근거하여, 결혼과 이혼을 중재시켜주는 매개변인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안정성

① 성 별 : 조사대상자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Burgess와 Wallin이 결혼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설문화하여 조사한 한남제(197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여자 응답자가 남자 응답자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자들이 가정생활에 대하여 불만이 다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동원(1987)의 조사결과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사실은 결혼생활의 충돌에서 이혼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Gunter(1977)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② 결혼지속년수 : 최재석(1982), 박찬미(1985)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결혼년수는 이혼과 負의 상관관계에 있어,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아짐을 밝히고 있으며, Booth, White(1980), Huber와 Spitze(1980)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한남제(197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가족일수록 가족생활에서 오는 불만이 많고 젊은세대일수록 좀 더 만족하고 있는것 같다고 밝히고 있는 한편 이동원(198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결혼안정성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결혼형태 : 연애결혼한 사람과 중매결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이태영 1968)도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매결혼의 경우보다는 연애결혼의 경우가 높은 안정도를 보이며(한남제 1971, 1984) 특히 연애결혼의 경우 여자의 안정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Maclver, Page 1962).

④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결혼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결혼안정성도 높으며 이혼율도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avis와 그의 동료들 1965; Udry 1966; Goode 1964; Cutright 1971; 최연실 1987). 사회계층별로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살펴볼 때, 하층은 다른 계층보다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유기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종료될 가능성이 다른 계층보다 크다고 한다(Bell 1971).

⑤ 종교일치 여부 :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부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치하는 사람들보다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한남제 1971; 이동원 1987).

⑥ 부부 양 친가의 사회경제적 지위 : Goode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부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사회적 배경은 동질적인 것이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남제(1975)의 연구결과에서도 양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가족의 안정성이 가장 높고, 배경이 유사한 가족 출신들이 결혼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제도적가족으로 부터 우애적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는(Adams 1980) 현대사회에서는 애정적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가족성원의 만족여부가 달려 있으며, 또한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도 관련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역할수행 문제보다는, 상호 얼마나 정서적으로 만족한 관계를 이루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게 된다(조혜정 1986).

Kephart(1977)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결혼생활을 '함께나눔(Sharing)', '육구충족', '정서적 안정감'의 견지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만약에 이러한 목표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인은 그들의 결혼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ewis와 Spanier(1979)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과 정적상관에 있으며,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최연실(1987)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3) 이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안정성

Rheinstein은 한 나라의 도덕적 풍토가 이혼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산업화된 나라가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보다 이혼율이 높으며,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도덕적 풍토에서 이혼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박영조 1981).

Levinger(1965)는 이혼에 대한 자유주의적태도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장애요인'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즉 이혼을 반대하는 종교적 규범과 같은 장애요소가 충분하다

면 그 결혼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Glick(1975)과 Cox(1978)도 이혼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가 이혼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중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결국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안정성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만족도,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분류한 결혼안정성의 유형별 경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및 변인의 구성

1) 결혼안정성

앞의 개념정의에 따라, 부부가 결혼을 와해시키려는 위기 경향적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 16개문항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 16문항은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자신의 결혼을 해체하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보이는 지를 측정하는 Booth와 동료들(1983)이 개발한 결혼안정성 척도(MII : Marital Instability Index)와 이 척도를 국내에 적용시킨 최연실(1987)의 척도를 모체로 하여 선별 작성하였다. 이 16문항으로 된 가척도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문항분석을 하여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12문항을 2차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2문항을 가지고 그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 1 요인에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결혼생활 위기 경향성이 포함되고, 제 2 요인에는 실제 별거경험 여부의 행동적 차원에서의 내용이 포함된다. 총 아이겐 값은 8.72로 전체변량의 72.67%가 공통변량으로 설명되고 있다. 공통변량 중 제 1 요인의 공통변량 점유율은 82.91%, 제 2 요인이 17.09%로 정서적·인지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결혼안정성 척도는 앞에서 정의 한대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생활을 와해시키려는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정서·인지적 평가에서부터 실제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별거경험등의 행동적 측면까지를 포함한다. 본 조사도구의 항목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계수는 .85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Roach와 그의 동료들(1981)의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번역·수정하여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이연주(1986)의 척도를 모체로 하여 본 연구문제에 부합되는 내용을 12문항 선정하였다.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부부간 평등성에 기초한 결혼만족도가 현 시점에서 결혼의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인만큼, 이에 부합되도록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8문항과 부부간의 평등·합당한 태도등을 나타내는 4문항을 1차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12문항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신뢰계수 또한 높게 나와 모두다 그대로 채택하였다. 신뢰도 검사의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3) 이혼에 대한 가치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란 이혼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지침과 근거라고 한 개념정의(고영복 1977)에 따라,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행동과 생각의 형식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을 여러

선행연구(최재석 1982; 박찬미 1985; 이동원 1986; 최연실 1987)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1차로 선정된 11문항의 가척도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하여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0문항을 2차로 선정하였다. 이 1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요인의 아이겐 값은 3.0이었으며, 10문항 모두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0문항 모두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사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혼안정성척도, 결혼만족도척도, 이혼에 대한 가치관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화하였으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음을 뜻하며,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부부 한쌍을 조사의 단위로 선정하여, 1차로 작성한 가척도를 가지고 1989년 6월 3일부터 17일 사이에 100명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토대로 검토·수정 보완한 본 조사용 측정도구로 1989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476부(남자 238, 여자 238)를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자료분석은 SPSS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평균, 표준편차 산출→T-test→변량분석과 사후 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피어슨 직렬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집 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238	50.0
	여 자	238	50.0
결혼지속년수	10년 이하	300	63.0
	11년~20년	108	22.7
	21년 이상	68	14.3
결혼 형태	연애 결혼	208	43.8
	연애반·중매반	148	31.0
	중매 결혼	120	25.2
사회경제적지위 ^{a)}	상	108	22.6
	중	264	55.6
	하	104	21.8
종교일치여부	일 치	354	74.4
	불 일 치	122	25.6
양친가의 사회경제적지위	양편 비슷	310	65.1
	남편쪽 높음	108	22.9
	부인쪽 높음	58	12.0

a) 사회경제적지위: Hodge & siegal(1968)에 근거하여 남편의 직업, 교육, 소득을 복합지표로 사용(각각의 구성지표에 1~5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3지표의 합산, 평균, 편차, 빈도 고려하여 상·중·하 구분).

관관계 → 단계적 회귀분석 → χ^2 검증

IV. 결과 및 해석

1.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결혼안정성의 평균, 표준편차 (n=476)

	평 균	표준편차	최빈치	중앙치	범 위
결혼안정성	51.87	7.00	53.00	53.53	12~60

이에 의하면 결혼안정성의 평균은 51.87점으로 서, 점수의 범위가 12점에서 60점인것과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의 결혼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 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53.53에서 60점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중간보다 높은 점수대에 있어(최빈치 =53.00),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안정성은 다소 높 은 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이혼의 결정은 거시적으로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는데(Hicks, Platt 1970), 우 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가치 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결혼안정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각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규명을 위하여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안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안정성의 정도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

(n=476)

사회인구학적변인	집 단	빈 도	평 균 점 수	검 증	Duncan's
성 별	남 자	238	52.06	t=0.61	
	여 자	238	51.67		
결혼지속년수	10년 이하	300	52.38	F=2.70	
	10 ~20년	108	51.41		
	21년 이상	68	50.32		
결혼형태	연 애 결 혼	208	52.49	F=2.83	
	연애반·중매반	148	52.00		
	중 매 결 혼	120	50.59		
사회경제적지위	上(14~15점)	108	52.39	F=3.73*	A
	中(11~13점)	264	52.14		A
	下(3~10점)	104	50.23		B
종교일치여부	일 치	354	52.28	t=2.23*	
	불 일 치	122	50.68		
양친가의 사회적경제적지위	양 편 비 슷	310	53.05	F=6.28**	A
	남편쪽 높음	108	51.96		A
	부인쪽 높음	58	49.07		B

*p<.05 **p<.01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방법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부 각자의 주관있고 솔직한 응답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부간에 어떤 정보교환이 없기를 바랬다.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조사원에게 내용 실시방법을 교육시켜 조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밀접한 관계로 해서 정보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부인 쌍방의 솔직한 자료를 얻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본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결혼안정성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결혼지속년수가 결혼안정성을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그 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기간이 양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킨다고 한 Huber, Spitze(1980)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나, 연령이 결혼의 안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동원(1987)의 견해와는 맥을 같이 한다.

결혼형태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그 형태에 따라 연애혼·중매혼·절충혼의 3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안정성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결혼형태도 결혼지속년수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층집단이 상층과 중층집단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Bell(1971), Goode(1962), 최연실(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하류층의 생활에서 물질적인 곤란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은 결혼생활에 거는 기대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서, 경제적 수입이 사회계층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하류계층일수록 경제적 긴장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적 긴장에서 비롯된 불화는 비경제적인 부부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점은 Cutright(1971)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교육·직업·소득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세 변인들이 결혼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상류층으로 갈수록 혼인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져 부부가 결혼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이 적어진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상류층 사이에서 좀더 자유주의적(박찬미 1985)일수도 있겠으나, 사회관계의 연결망과 친족관계의 연결망이 보다 광범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혼인해체는 하류층에 비해 적은듯하다.

종교일치여부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종교가 일치하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보다 결혼안정성이 높았다(표 3). 이는 한남제(1975), 이동원(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같은 종교를 가진 부부의 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부가 일치된 종교를 가짐으로서 일단 종교생활의 공동참여로 인해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부부들보다 많고, 이를 통해서 부부간의 가치관 합의도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더 결혼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종교단체 친구들과의 교제망은 혼인해체에 대한 장애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부부가 갖는 배경의 일반적 유사성을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부부 양친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 안정성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부인쪽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이 다른 두 집단(양편이 비슷한 가족, 남편쪽이 높은 가족)에 비해 낮은 결혼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가족의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남제(197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Goode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질적인 사회적 배경은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거주지역·학교 혹은 직장등이 일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배경이 유사한 가족출신들이 결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가정에서 성장한 부부의 경우, 부부가 서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질 수 있고 또 결혼이후에도 유사한 생활양식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게 되므로

보다 더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인쪽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편 쪽보다 높을 경우, 부인은 가정생활에서 부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남편측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 보수적인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집단에 비해 부부간의 문제가 다소 많이 표출되며 따라서 결혼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와 안정성간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결혼안정성과 매우 뚜렷하게 의미있는($p < .001$)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4). 이는 최연실(1987), 김선영(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현재의 결혼을 지속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결혼을 해체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애정과 이해가 가족유지의 핵심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애정이란 주관적인 것으로 애정이 식으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시킬 당위성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하나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4. 결혼안정성과 만족도, 이혼가치관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n=476)

주요변인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이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안정성	1.00		
결혼만족도	.77***	1.00	
이혼에 대한 가치관	.49***	.54***	1.00
평 균	51.87	44.23	39.84
표준편차	7.00	8.69	6.34

*** $p < .001$

3) 이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안정성

이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안정성간의 피어슨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안정성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p < .001$). 즉 부정적인 이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Jorgenson, Johnson(1980)의 견해를 지지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각 사회의 이혼율의 차이를 법의 차이만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회와 비교적 자유로이 이혼할 수 있는 사회간에는 이혼율의 현실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는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태도를 결정하여 주기 때문이다.

3.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결혼안정성에 대한 모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결혼만족도 변인, 이혼가치관 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 5. 결혼안정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476)

종속변인: 결혼안정성				
독립변인	B	β	Partial R^2	R^2
결혼만족도	.565	.701***	.586	.586
이혼에 대한 가치관	.124	.113***	.008	.594
결혼지속년수	-.556	-.058***	.003	.597
회귀상수 R^2	22.466		.597	

***p.001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이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지속년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지고,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지속년수와 안정성간의 관계를 보면 결혼년수가 짧은 젊은 세대에서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젊은세대의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대사회의 결혼 적령기가 높아진 만혼의 추세로 조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안정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기성세대에 비해 결혼생활에서 오는 어려운 경험이 아직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3개 변인에 의하여 결혼안정성은 약 60% 정도가 설명되며, 이때 특히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은 나머지 두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결혼만족도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안정성

전반적인 부부관계를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유형화 해보면 표 6과 같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의 두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유형 I>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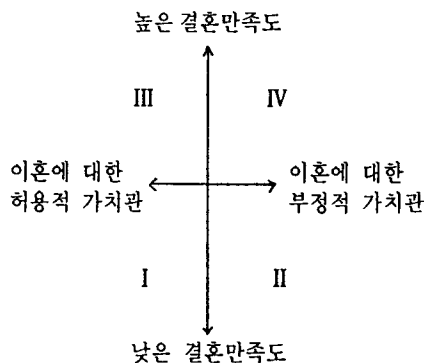


표 6. 결혼안정성의 4가지 유형.

표 7. 유형별로 본 성별 응답자 수

구분	남 자	여 자	계
I 집 단	22.3(53)	28.2(67)	25.2(120)
II 집 단	21.4(51)	22.7(54)	22.1(105)
III 집 단	14.3(34)	11.8(28)	13.0(62)
IV 집 단	42.0(100)	37.4(89)	39.7(189)
계	100.0(238)	100.0(238)	100.0(476)

$X^2=70.134^{***}$ df=3

***p<.001

허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결혼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위기경향적 특성이 매우 높게 내재되어 있는 유형이다.

〈유형 II〉 만족도가 낮으면서도 부정적인 이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로서, 부부관계에서 개인의 만족보다는 결혼관계의 유지자체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개인이 불만족하더라도 결혼생활은 유지된다.

〈유형 III〉 만족도는 높으나 허용적인 이혼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이는 상황변화에 따라 현재의 만족스런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쉽게 이혼해 버릴 수 있는 경우이다.

〈유형 IV〉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이혼가치관을 갖는 유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며 결혼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유형별 조사대상자 비율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부정적인 가장 안정된 IV집단이 39.7%로서 가장 많으나, 만족도가 낮으면서도 부정적인 이혼 가치관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II집단이나, 만족도는 높으나 허용적인 이혼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III집단도 각각 22.1%, 13.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해체의 불안을 안고 있는, 다시말해 만족도도 낮고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허용적으로서 결혼안정성이 아주 낮은 I 집단도 25.2% 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일이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50% 이상되는 비율이 다소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도시 부부들의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변인들의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안정성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나아가 부부관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혼의 예방 및 결혼안정성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결혼만족도 변인,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결혼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 뒤 제반 측정도구를 작성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도시 부부들의 결혼안정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2)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탐색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일치된 종교를 가진 부부일수록, 양 친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할수록 안정성은 높았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결혼안정성과 매우 뚜렷하게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보여,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결혼안정성은 높게 나타났다.
 - 3) 결혼안정성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지속 년수의 순이었고, 결혼 안정성에 대한 제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60%로 나타났다.
 - 4) 결혼안정성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혼가치관도 부정적으로 지니고 있어 가장 안정되어 있는 집단이 39.7%로 가장 많으나, 반면에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가치관을 지녀 안정성이 아주 낮으면서 위기 경향성이 짙은 집단도 25.2%나 되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구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높게 나타난 외형적인 안정성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시말해 겉으로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쉽게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위기경향성 가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관계에서는 안정성을 유지시키기는 하나 각자의 이상에 맞는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탐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핵은 결혼만족도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임이 밝혀졌다. 이 두 변인중에서도 특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결혼만족도라는 본 연구결과를 볼때, 부부간의 우애성을 토대로 한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결혼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보다도 부부 두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가 바로 결혼의 안정성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우리나라의 가족도 여러 가족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제도적 관계의 틀 속에서 벗어나 부부간의 우애적 관계를 중시하는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결혼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심변인으로 나타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배우자 선택문제·결혼·가족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성화 및 가족향상 프로그램이나 부부생활 향상 프로그램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제도 및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남녀간의 우애적 관계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성격리문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성 차별적 사회화등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영조 :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석사학위 논문, 1981
- 2) 박찬미 :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학위논문, 1985
- 3) 박혜인 : 산업화와 가족생활 : 가족연구의 실천적 지평을 위한 일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41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988
- 4) 이등원 :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87
- 5) 이등원 : 가족제도(II)-부부관계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1986
- 6) 이연주 : 결혼만족도의 타당화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1986
- 7) 이태영 : 한국이혼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68에서 재인용
- 8) 이태영 : 한국의 이혼율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1
- 9) 한남제 : 가족해체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4, 1968
- 10) 한남제 :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문제 : 핵가족제도 하에서의 부부관계. 논문집 5, 경북대학교, 1971
- 11) 한남제 : 한국 도시가족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4,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원, 1975
- 12) 한남제 : 한국도시 가족연구-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 일지사, 1984
- 13) 한남제 : 가족가치관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3), 1985
- 14) 차명희 : 문제가족(I).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1986
- 15) 최재석 : 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 16) 최연실 : 사회경제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7
- 17) Adams BN : *The family. Third edition, by Mcnally collage publishing Com, 1980*
- 18) Bell RR : *Social class variations in marriage and*

- the family. In R.R. Bell(ed.),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Tome Wood ; The Dorsey Press, 1971*
- 19) Booth A & White LK :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1980
 - 20) Booth A & Edwards JN : *Measuring marriage and the Family* 45 : 1983
 - 21) Burr WR :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 Jon Willey & Sons, 1973*
 - 22) Cox FD : *Human intimacy ;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St. Paul ; West, 1978*
 - 23) Cutright P : *Income and Family events ; Marital stability. JMF* 33, 1971
 - 24) Festinger LA :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lionis ; Row, Pererson, 1957*
 - 25) Glick PC : *A demographer looks at american families. JMF* 37 : 1975
 - 26) Goode WJ : *Family disorganization, in R. Merton & K.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ems, 1961*
 - 27) Goode WJ : *Marital satisfaction and instability ; A cross-culturol analysis of divorce r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4 : 1962
 - 28) Goode WJ : *The Family, N.Y. ; Prentice-Hall, 1964*
 - 29) Gunter BG : *Notes on divorce family as role behavior. JMF* Feb, 1977
 - 30) N icks MW & Platt M :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reviews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MF* 32(4) : 1970
 - 31) Jorgenson SR & Johson AC : *Correlates of divorce librality. JMF* 42(3) : 1980
 - 32) Kephart WM : *The family, Socity and the individual, Boston ; Houghon Mifflin CO, 1977*
 - 33) Landis JT : *Some correlates of divorce and non-divorce among the unhappily married.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 1963
 - 34) Lvinger G :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 An interactive review, JMF* 27 : 1965
 - 35) Lewis RA & Spanier GB :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Wesley R Burr, Reuberz Hill, F Ivan Nye and Ire L. Preis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36) Maclver RM & Page CH : *Society, 1962*
 - 37) Nye FI & White L : *A partial theory of family stability, paper give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 Washington, D.C., 1969*
 - 38) Roach RJ & Frazier LP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e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MF* 43 : 1981
 - 39) Spanier G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g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stabilit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ixtes. JMF* 43(32) : 1976
 - 40) Spitze JG : *Cosidering divorce ; An expansion of becker's theory of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logy* 86(1) : 1980
 - 41) Udry JR : *Structural correlates of feminine beauty preference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 Acomparis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49), 1966*